

#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건]

2023. 7. 5.(수)

## □ 경남 기사

- '거제 영아유기' 부부 살인혐의 금주 송치 (국제신문)
  - 경찰, 범행자백 토대 막바지 수사 / 해경·市도 "발견 못했다" 통보
- "불안해서 수산물 사먹겠다" 울분 터진 남해어민들 (도민일보)
  - 남해 창선서 1000여 명 집회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홍 보 담 당 관 실

# ‘거제 영아유기’ 부부 살인혐의 금주 송치

## ■ ‘유령 아동’ 사망 속속 확인

경찰, 범행자백 토대 막바지 수사  
70여 명 투입 하천·해안가 수색  
10개월 지나… 사체 확보는 불발  
해경·市도 “발견 못했다” 통보

경찰이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부모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뒤 버려진 영아의 사체를 찾으려 4일 지역 하천 일대를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막바지 수사를 이어간 뒤 이번 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20대) 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30대) 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5일 만에 살해된 C 군의 사체를 찾으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거제 고현천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기동대 등 경력 70여 명을 투입해 A 씨가 지목한 지점에서 신현제2교까지 폭 40m, 길이 430m에 이르는 하천 구간과 그 이후 양쪽에 펼쳐진 해안가 각 500m 구간을 뒤졌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애초 이번 수색은 난항이 예상됐다. A 씨가 아이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바다와 인접한 하천으로 던졌다고 진술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지났기 때문이다. 해경은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영아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거제시도 지난 3-5월 해당 하천을 청소했으나 당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생후 5일 만에 살해된 영아의 사체를 찾으려 거제 고현천 일대를 수색했다. 독자 제공

사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체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지역이라 수위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경력을 투입했는데도 깊은 곳은 1m에 달했고, 비까지 내려 수색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사체를 찾지 못해도 이들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부가 지난 1일 경찰 추

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각각의 진술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체 유기 시점이 아이 출생 직후가 아닌 5일 뒤였던 점, 생모인 B 씨가 아닌 남편 A 씨가 아이를 살해한 점 등에 주목해 이들에게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 수색을 끝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경찰 구속 기간이 10일이라 이번 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A 씨 등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애초 “지난해 9월 9일 집에서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A 씨 등은 앞선 진술을 번복하고 살해 사실과 실제 유기 장소를 털어냈다.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여청과 통보 >

# “불안해서 수산물 사먹겠나” 울분 터진 남해어민들

남해 창선서 1000여 명 집회  
“원전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정부 생계대책 마련 등 촉구

남해지역 어업인 1000여 명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올해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 관련기사 2면  
한국수산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 등 어업인단체 소속 어업인들은 4일 남해군 창선면에서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생계대책 마련 호소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장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방류 반대’ 등의 팻집막이 나붙었고, 어민들은 ‘핵 오염수 결사 반대’ 등의 전단을 들고 결의를 다졌다.

천명조 한국수산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란 것”이라며 “우리 어민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문만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방류 공포가 소비자 사이에 퍼지면서 수산물 소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의 공포가 막연하다면 어민들의 공포는 현실”이라고 지적



한국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 회원들이 4일 남해군 창선면 창선삼천포대교 회타운 주차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할 뿐,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남해군어촌계연합회 회장은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곳이 없어 바다로 방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냐”라며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에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직접 겪었다. 그러나 희망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경원(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한다면 우리 어민이 그 피해를 오롯이 입게 될 것이다. 30년 동안 계속 방류한다면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대책은 방류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일본 내 어민단체연합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국과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어 그들과 연대하고 국민이 동참한다면 방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며 도보순례를 시작한 김용민(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지금처럼 일차적인 손해를 입는 어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2, 3차 손해를 입는 그 밖

의 산업과 국민이 함께 공동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비가 오는데도 어민들이 생계를 놓고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와 정부 차원의 생계 대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종현 기자 kimjh@domin.com

< 정보과 통보 >

## 정의당 오늘 창원서 ‘원전 투쟁단 보고대회’

전국 돌면서 반대 여론 모아  
“경남 예상 피해 대책 마련을”

정의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며 5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일본 원전 투쟁단 보고대회’를 연다.

정의당 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은 4일 부산 일본총영사관앞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할 법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산시장 수조 속 물을 떠 마시는 쇼까지 벌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육지 보관 등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조롱하고 기망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고 당원과 비상행동에 돌입해 매일 정당연설회 등을 열고 있다. 정의당 전국순회투쟁단은 제주를 시작으로 부

산을 거쳐 전국을 돌며 시민과 만나 반대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

정의당은 일본 투쟁단을 꾸려 지난 달 22일부터 사흘간 후쿠시마 1원전을 시찰하고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5일 창원을 찾아 투쟁단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강은미·배진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영국 도당위원장은 “정의당은 일본에서 방사능 연구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침을 여러 각도로 분석했다. 국제법, 국내 법령, 문서확약, 운용방침, 실시계획 위반 등 5가지 중대한 위반 사실을 알아냈고 후쿠시마에는 핵오염수를 보관할 대체용지도 있다는 것, 원전 폐로를 위해 마련한 장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제사회 여론을 모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내야 하고 경남지역 예상 피해 규모와 영향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 기자 image@

< 정보과 통보 >

## 도내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장

### 창원 내서119안전센터 앞

경남 최초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창원에 등장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4일 내서읍 신평마을 일원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내서119 안전센터 앞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준공 현장을 점검했다. 내서읍 신평마을 일원은공단 밀집 지역으로 중리공단로와 인접해 있고, 마을에서 중리공단로로 진출 시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주민들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많았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경남도 경찰청

과 협조해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경남 최초로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기존의 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다.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는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단속구간 정지선을 지난 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촬영,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ews.co.kr

< 교통과 통보 >



양산경찰서, 동면초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가 동면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난 3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널목 일시정지 등 운전자 교통법규를 알리고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이현희 기자



거제경찰서, 장목초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거제경찰서는 4일 장목초등학교에서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직원, 학생 등 40여 명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무단횡단 금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교직원들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보행자 안전우선' 등의 피켓과 어깨띠 등을 활용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배창일기자

## 경남도민일보

2023년 7월 5일 수요일 014면 사람들



### 밀양경찰서 상동치안센터 개소식

밀양경찰서가 지난 3일 상동치안센터에서 경찰서장, 상동행정복지센터장, 이장단 대표,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동치안센터 개소식을 했다. 밀양시는 치안센터 3곳(상동·청도·초동)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경찰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일균 기자

# 납품 도와주고 6300만 원 챙긴 양산시공무원 징역 4년

## 실제 양산시청 8억 상당 계약 뇌물 받은 돈 승진 청탁에 써

사무관 승진 비용 마련을 위해 관공서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양산시 공무원(국제신문 지난 3월 7일자 8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8000만 원, 추

징금 4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CCTV 제조업체들의 브로커 역할을 해 온 B 씨에게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6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에게 사무관 승진 관련 제안을 해 청탁 비용을 받아 챙긴 또 다른 브로커 C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떨어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C 씨는 사무관 승진을 목전에 둔 A 씨에게 "인맥을 이용해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고, B 씨는 그가 승진하면 A 씨에게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C 씨에게 30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A 씨는 그해 승진에서 낙선했다. 이듬해인 2021년 6월 A 씨는 또 다시 B 씨에게 승진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무인교통감시장치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대가였다.

실제 B 씨가 다리를 놓은 4개 업체는 2020년 1~6월 양산시청과 4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시청의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의 예산배정, 사업현황, 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줬고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공무원을 B 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거래를 통해 B 씨는 업체들로부터 모두 1억41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A 씨가 뇌물 중 3000만 원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심법기자 mets@kookje.co.kr

## 慶南日報

2023년 7월 5일 수요일 004면 사회

### 음주운전에 몸싸움까지 함양군 공무원 잇단 비위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위에 연루되며 공직자 기강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며 진병영 군수까지 직접 나서 유감을 표하자 직원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4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공무원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공무원 B씨는 지난달 20일 술을 마신 뒤 편의점 물건을 구매하다 시비가 붙어 점주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밖에 올 2월 공무원 C씨는 도내 한 쇼핑몰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옷을 가지고 나오다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C씨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진 군수가 최근 정례 조회에서 언급하며 알려지게 됐다. 당시 진 군수는 잇따르는 비위 의혹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끔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남스

## 慶南日報

2023년 7월 5일 수요일 004면 사회

### 거제시장 부부, 오늘·20일 각각 재판

각기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부부가 이번 달 잇따라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5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박 시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당초 A씨 재판 다음 날인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측 요청으로 변경됐다. 연남스

# 실명 거론 “동성애자·간첩단” 도의원 공개 발언 문제없나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 해당  
공공의 이익 여부가 처벌 갈라  
위법성 인정 땐 벌금형 판례도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공식 회의에서 도민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했을 때 어떤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유사 판례를 살펴봤다.

▶ 6월 20·22일 자 1면 보도

◇법적 논란 불러온 발언 = 우선 지난달 정례회 기간 법적 논란을 불러온 발언을 정리했다. 지난달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정규현(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경남교육청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자문위원 3명 실명과 직함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다. 지금 교육한 것을 보니까 완전히 젠더 교육에 뭐 동성애”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한 단체를 언급하며 “이번 창원 간첩단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 시키고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 “간첩단 사건도, 이 말씀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분들이 성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아마 강사들도 어느 정도 배치를 했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이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문협의회에 이 세 분 그대로 넣을 거

냐.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동성연애자들”이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경남지역 학부모 1만 명의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기사를 화면에 띄우고, 학부모 대표 실명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 대표가 일하는) 마을학교가 행복교육지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이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에 활용이 안 되겠죠, 이제 3선으로 끝났으니까. 교육감 선거 도왔다고 다시 (예산) 복구시켜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윤준영(국민의힘·거제3) 의원은 지난달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첩단에서 활동했다는 ○○○ 씨가 진주 행복마을학교 선생으로 들어갔는데 파악하고 있느냐”며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가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이 무슨 의도로 아이들 교육에 참여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청 담당자가 ○○○ 씨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자 “왜 이름을 말하지 못하느냐. 간첩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공의 이익’ 위한 발언이었나 =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한 직장 선배를 두고 ‘게이인 것 같다’,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지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했다”면서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예도 있다. 경남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결국 사실 적시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이지만,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물 관리단 관계자는 건물 관리소장 측과 다투다가 2016년 1월 폭행을 당했다. 소장 측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관리단 관계자는 그해 12월 입주자 28명에게 이 형사 사건 판결문을 사진으로 첨부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관계자는 2018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관계자는 “비방 목적이 없었고 입주자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의 내밀한 정보로, 판결문이 건물 입주자들의 공통된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남도민일보

2023년 7월 5일 수요일 014면 사람들



###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 마약 근절 캠페인

밀양시의회 정정규 의장은 지난달 30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청소년 마약 중독이나 관련 범죄가 급속하게 퍼지는 요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일균 기자

## 오늘의 날씨

**오전 비 그쳐... 낮 체감온도 최고 33도**  
 5일 부산 울산 경남은 오전까지 비. 낮부터 기온이 올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무덥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7월 5일 (음 5월 18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30 자외선 40 피부 40 냉방 80 빨래 20

- ☀️ 맑음
- ☁️ 구름조금
- ☁️ 구름많음
- ☁️ 흐림
- ☁️ 맑은 후 구름많음
- ☁️ 구름 많은 후 맑음
- ☔️ 호리고 비
- ☔️ 소나기
- ☔️ 한때 비
- ☔️ 천둥번개
- ☔️ 호리고 비눈
- ☔️ 호리고 눈

해돋이/해질 05:14 19:42  
 달돋이/달질 21:41 06:42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9:38 22:13	03:26 15:29
인천	06:07 18:21	12:39
포항	15:50	
통영	09:59 22:50	04:05 15:58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남서-서	7-11	0.5~1.5
남해동부	남-남서	4-9	0.5~1.5
동해남부	남-남서	6-12	1~2
동해중부	남동-남	6-12	1~2
서해중부	남서-서	8-15	1~3
서해남부	남서-서	7-11	0.5~1.5

**주간날씨**

	6 (木)	7 (金)	8 (土)
부산	☀️ 22-29	☁️ 23-26	☀️ 23-27
울산	☀️ 22-33	☁️ 22-27	☀️ 22-29
진주	☀️ 20-32	☁️ 22-26	☀️ 22-30
김해	☀️ 22-32	☁️ 23-27	☀️ 23-30
창원	☀️ 21-32	☁️ 22-27	☀️ 23-29
통영	☀️ 21-28	☁️ 22-25	☀️ 23-27
대구	☀️ 22-35	☁️ 23-29	☀️ 23-32
세종	☀️ 23-32	☁️ 23-30	☀️ 23-30
서울	☁️ 23-32	☁️ 24-31	☁️ 23-31
제주	☁️ 24-31	☁️ 24-30	☁️ 26-30